

“마음의 호미 들어 무명의 풀 뽑아라”

김해 정토원 호미든 관세음성상 봉안 50주년 법회

1959년 보릿고개 시절, 민중을 선도하고 일깨우기 위해 젊은 불교학도들이 김해 봉화산에 호미를 든 관세음보살상을 봉안한지 50주년을 맞았다.

당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재학생 31명이 신심, 사회, 경제, 사상 4대 개발을 발원하며, 우리 민족의 서러움을 상징하는 증표로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손에 호미를 들게 했다.

김해 정토원(원장 선진규)은 4월 5일 오전 11시 ‘호미 든 관세음성상 봉안 5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는 선진규 원장(가운데)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오른쪽).



김해 정토원 호미 든 관세음성상(왼쪽), 4월 5일 ‘호미 든 관세음성상 봉안 5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는 선진규 원장(가운데)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오른쪽).

김해 정토원(원장 선진규)은 4월 5일 오전 11시 ‘호미 든 관세음성상 봉안 5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기념 법회는 봉안 50주년 기념사, 법어, 격려사 및 축사, 발원문 낭독 등의 순으로 여법하게 진행됐다.

선진규 원장은 기념사에서 “오늘날 불교는 타종교의 공격적 태

도와 폄하로 상처 입었지만, 이럴 때일수록 불교 안에서부터 자성하고 극복성향을 벗기 위해 뼈아픈 각오로 새 출발을 해야 한다”며 “못살던 1959년 4월 5일 기복 불교를 생황불교로 자리 잡도록 봉안한 호미 든 관세음상에 갖는

원력을 다시금 일으켜 한국 불교 중흥의 전기를 만들자”고 말했다. 이어 선 원장은 불교 중흥의 원력을 세우는 두 가지 서원으로, “우리 마음 속 삼독심의 잡초를 뽑아낸 자리에 보리심을 심고, 전 종단을 아우르는 대동단결의 결

사체를 이뤄 승속이 함께 단합해 불교의 중흥을 이뤄내자”고 발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법어를 통해 “관세음보살은 ‘성모’로 자비하신 어머니로 흔히 감로수 병, 연꽃, 버드나무가지, 고기 잡는 나무바구니 등을 들고 있지만 마음 속 무명의 풀을 뽑는 상징으로 호미를 들었다”며 “고인 물은 썩고, 버려둔 음식이 서서히 상하듯, 마음의 호미를 들어 게으름이 올 때마다 되새기길 바란다”고 설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해홍 스님 및 봉안에 참여한 동국대학교 동문회원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원형통유리 법당서 불법 펼쳐요”

대웅보전 낙성식 기념법회 흥법사 주지 심산 스님

“제게 대웅보전은 부처님 법을 펼 수 있는 근원적인 공간입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불교의 거점 이면서 우리 신도들에게는 여전히 마음의 고향이 되어주지요.”

부산 흥법사주지 심산 스님은 4월 11일 대웅보전 낙성식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첫 삽을 뜬지 약 10개월째지만, 사실 불사는 2005년 2월 ‘대웅보전 건립을 위한 일만 배 정진기도’ 때 시작했다.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실감이 나질 않아요. 참 오래 전부터 신도들과 함께 대웅보전을 발원했는데, 뜻밖의 좋은 인연들이 모여 기공식 이후에는 빨리 진행됐습니다.”

심산 스님(사진)은 지난 10개월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손엔 무전기를 들고 작업자들과 함께 현장을 진두지휘했다.

“설계도면이 실제 현장에서 완벽히 일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 골격은 설계에 따르되 그때그때 현장에 맞게 수정을 하다 보니 한시도

현장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완성된 새 대웅보전을 기존 전통사찰 건축양식의 큰 법당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마치 UFO처럼 둥근 원형의 통유리로 이뤄진 전혀 새로운 양식이다. 사방으로 열린 독특한 구조는 부산을 넘어 세계로 불법을 흥법하는 거점으로 서 시대와 문화, 복지를 아우르는 신행공간이 되길 바라는 심산 스님의 오랜 발원이 담겨있다. 또 묘사체에 20개의 객실을 만들어 내한 외국인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손엔 무전기를 들고 작업자들과 함께 현장을 진두지휘했다.

“지금도 흥법사에는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로 유학 온 몽골인 대학생 2명이 기거하고 있을 정도로, 사찰을 찾아오는 외국인이 점차 늘어



났지만, 편의시설이 부족해 불편함을 감수하며 숙박업소로 발길을 돌리는 게 안타까웠다”며 “현대적인 설비를 갖춰, 외국인들이 편안하게 찾아와 한국불교문화를 만날 수 있는 사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세계와 만나는 ‘불교 창구’로 활약하게 될 흥법사 신도들 또한 스님과 한마음으로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이제 국내에서 보다 많은 분들이 흥법사를 찾아올 것을 대비해 내적인 준비를 해야죠. 그저 커다란 대웅보전과 옥상대불을 보러왔던 이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고 신심을 낼 수 있도록 이끌어낼 것입니다.”

대웅보전 낙성식은 끝났지만 흥법사 대웅보전 불사는 현재진행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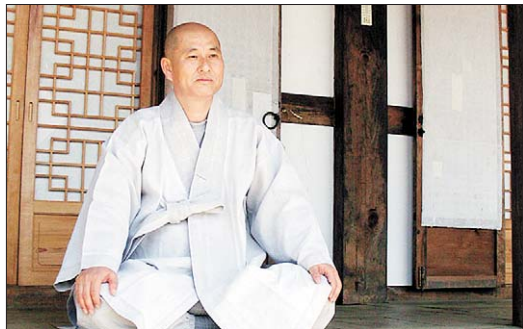
“이제 대웅보전 건물과 묘사체가 완성됐으니, 나머지 30%인 옥상대불, 법당 안 부처님, 삼천불을 차례로 모셔야죠.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박지원 기자

‘벽송선회’ 부산도심에 나뒀다

미타선원 제1기 행복선수행학교 5월 7일 개교

그동안 함양 벽송사 벽송선원(선원장 월암)에서만 들을 수 있었던 월암 스님의 ‘벽송선회’가 드디어 부산도심에서 펼쳐진다.

웅두산 미타선원(주지 하림)은 5월 7일 간화선의 공부와 수행에 관한 체계적인 참선수행전문도량 행복선수행학교를 개교, 제1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학교장을 월암 스님이 직접 맡아 간



부산 미타선원에서 5월 7일 개교하는 행복선수행학교 교장을 맡은 벽송선원장 월암 스님.

화선 이론과 실참 지도로 참된 수행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

월암 스님은 “행복선수행학교에서 선에 대한 올바른 이념을 정립하고, 실참수행을 통해 완전한 행복에 이르며, 나아가 역사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자비를 실천하는 대승보살의 삶을 살아갈기 바란다”고 말했다.

행복선수행학교 제1기는 4학기

총 2년 과정으로 매주 목요일 주·야간 반으로 나뉘어 오후 2시와 오후 7시 30분에 각각 시작하며, 모집정원은 주·야간 각 100명에 한한다.

학기별 이수 과목은 △1학기 ‘초기불교, 부파불교’ ‘인도선사상’ ‘중국선종사’ ‘좌선의 △2학기 ‘중관학, 유식학’ ‘한국선종사’ ‘육조단경’ ‘전심법요’ △3학기 ‘전태사상, 화엄사상’ ‘서장’ ‘선요’ ‘입제

록’ ‘보현행원품’ △4학기 ‘간화선수행’ ‘선가계감’ ‘참선경어’ ‘간화결의론’ 등으로, 그간 벽송선회를 통해 월암 스님이 지도해 온 간화선의 총체를 만날 수 있다.

4월과 10월에는 2박 3일 일정의 참선수행심화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8월과 12월에는 2주간 방학도 주어진다. 입학식은 5월 3일 오후 2시 미타선원 행복선수행학교 3층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주지 하림 스님은 “지난 3년여 지극한 발원이었던 행복선수행학교가 이제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그 동안 선에 대한 경건 없이 그저 참선만 하던 불자들에게 이론과 실참지도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051)253-8686, www.mitazen.net 박지원 기자

늘 깨어있는 자세로 정진 다짐

4월 8일 불국토 창립 15주년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정진하는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이사장 해홍)가 창립 15주년을 맞았다.

(사)불국토는 4월 8일 오후 7시 30분부터 영주암 원통보전에서 창립 제15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번 기념식은 불국토가 운영하는 17개 기관, 관계자 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인 연혁 및 4대 비전 선포식, 불국토 자비카드 및 삼성자동차 적립 후원금 전달식, 2009년도 민관지원 우수사회복지프로그램 대상 포상 수여식, 언론으로 보는 불국토 영상물 상영, 법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민관 선정 사회복지프로그램은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의 ‘아이마루’ 지원금 1억3000만원 외 3편, 옹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의 ‘가톨릭가 언어치료센터’ 지원금 1016만원 외 2편, 양정청소년

수련관 ‘비상구’ 2200만원 외 2편, (재)불국토청소년도량 ‘HipHop 사랑방’ 4000만원 등 총 11개 프로그램이 선정돼 약 1200만원에 가까운 포상금을 시상했다.

이사장 해홍 스님은 “15년 동안 불국토는 부산 최초, 전국 최초 등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사업을 실시해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했다”며 “앞으로도 불국토 설립이념인 ‘너와 나 차별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늘 깨어있는 자세로 정진하라’고 강조했다.

1994년 사단법인 불국토(대표이사 정관)를 시작으로, 1995년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1998년 재단법인 불국토청소년도량(대표이사 법산)을 설립해 각각 교화 및 사회복지, 청소년사업 등을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다.

박지원 기자

“조동법맥 잘 이어나가자”

조동종 종조 다례제 봉행



4월 3일 도선사에서 열린 조동종 종조 동산존자 양개 대화상 다례제.

대한불교조동종은 4월 3일 서울 노원구 상계4동에 자리한 총무원 도선사에서 총무원장 덕우 스님을 비롯한 승정부원장 덕룡 스님, 부원장 행원 스님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해 조동종 종조 동산존자 양개 대화상 다례제를 봉행했다.

승정부원장 덕룡 스님이 동산존자 양개 대화상의 행적 소개를 하고 종회위원장 해룡 스님이 발원문을 낭독했다.

총무원장 덕우 스님은 “종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종단의 발전과 총무원 총장의 불사가 원만히 회향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례제에 입실건당을 병행함에 있어 조동종의 조동법맥을 잘 이어나가주시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한편 총무원 도선사의 고려시대 석불이 서울시문화재로 등록돼 노원구청장 축하 인사도 있었다. 청은 경남남부지사장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퇴마, 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 개강일: 4월 22일(수요일) ▶ 교육 기간: 6주(24시간) ▶ 모집 인원: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100만원

특기 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고 스님들만 교육받는 유일한 곳

6주 24시간, 짧은 수련기간, 최면 시술사 완성이라는 문구에 “정말 될까?”라고 반신반의하면서 공부하셨던 100여분의 스님들이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최면 시술을 하시며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보람과 자부심도 느끼신다 하셨습니다. “스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 무초 정락 합장 -

- 불자들의 요청에 교육없는날 1일 1분씩만 상담을 받습니다.
- 빙의와 神病으로 고생하시는 분
- 자녀의 가출, 습관, 성격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 우울증, 알코올중독, 게임중독, 마약중독 등...

(사)유마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세일빌딩 401호 ☎ 02)763-0661~2

개인 특별지도

시간없으신 스님들을 위하여 2박3일 실습위주로 교육(hard training), 신분비밀보장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동 요가마을 21년전통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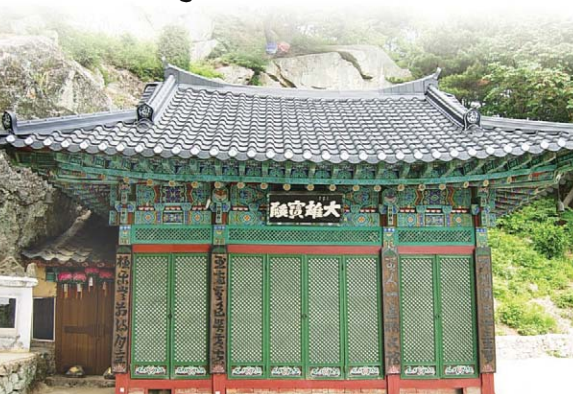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원 규운 가 루 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죽염 230g 55,000원
- 2원 규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마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부산지역은 부산농협 각지점 “신도봉이 배달”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ij.co.kr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사철(대웅전, 묘사체,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 서울·경기: 02)456-8831
- 강원도: 019-396-1110
- 충청도: 010-8674-2357
- 경상도: 011-327-7697
- 전라도: 010-2311-0157

현대 칼라지붕공사